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7.7.(월) 06:00 < 7.7.(월) 석간 > 배포 2025. 7. 4.(금)

한-영국 자유무역협정(FTA) 5차 개선협상 개최

- 7.7(월) ~ 11(금), 서울
- 서비스, 투자, 디지털무역, 원산지, 정부조달 등 16개 분과 협상 -

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양국 간 교역·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, 우리나라와 영국 간 FTA 개선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7.7(월)~11(금) 서울에서 개최된다.

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(Adam Fenn)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.

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(Brexit) 이후 한-EU FTA 수준으로 체결되었던 한-영 FTA(’19년 서명, ’21년 발효) 현대화를 목표로 하여,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·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4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.

이번 제5차 개선협상에서는 서비스, 투자, 디지털무역, 원산지 규정, 정부조달 등 16개 분과에서 세부 협상을 진행하여 주요 쟁점에 관한 양측 입장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.

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“보호무역주의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”라고 강조하며 “한-영 FTA 개선협상을 통해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고 주요 산업에서 양국 간 교역·투자·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	책임자	과장	손호영 (044-203-5830)
		담당자	사무관	박태현 (044-203-583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